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승인 · 10기 임원선거 일정 확정

11일, 노조 121차 중앙위원회 열어...22일-24일 찬반투표 · 9월 18-20일 임원선거 1차 투표

금속노조가 8월 11일 오후 서울 조합 회의실에서 12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승인하고, 10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위원들은 회의 첫 안건으로



등에서 세 지부 사이 차이가 너무 크고 명확했다”며 통합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경북권 통합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대의원대회에 유

노조가 제출한 올해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일터 괴롭힘 금지 등을 검토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과 찬반투표 일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노조는 22일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해 24일 17시 투표를 종료하고 9월 5일 14시에 중앙교섭 조인식을 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장진수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기 임원선거 일정과 예산을 설명했다. 노조는 8월25일 선거인명부를 최종확정하고 28일 후보등록 마감한다. 임원 후보들은 9월5일 정책토론회를 벌이고, 7일부터 14일까지 유세를 벌인 뒤 17일 선거운동을 종료한다. 1차 투표는 9월18일, 2차 투

표는 9월25일, 3차 투표는 10월10일에 각각 사흘 동안 치른다. 중앙위원들은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일정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구미, 경주, 포항 등 경북권 통합지부 유예 요청 안건과 관련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노조는 2015년 3월 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미, 경주, 포항지부를 10기부터 경북지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위에 경북권 통합을 2년간 유예하고, 11기 임원선출을 통합선거로 시행하되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올렸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통합을 위한 노력 속에서 논의를 계속 해왔다. 조직, 교섭과 투쟁, 재정 관행

예안을 올리지 못했다”며 “문제 소지는 있으나 2년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11기에 반드시 통합한다는 전제로 10기 선거를 치른다는 내용을 중앙위원 동지들이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앙위원들은 토론 끝에 원안에 ▲다음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 결정을 부결하면 10기 구미, 경주, 포항 지부 임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후 상급 회의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기타 안건 두 번째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김영호 조합원을 선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필 서명 약속 지켜라”

하이디스지회, 청와대 앞 공동행동 돌입...대만 E-INK 자본, 교섭하자더니 공장 매각 뒤통수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가 8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하이디스 정리하고 철회, 대만 이잉크 특허기술 먹튀 OUT 하이디스 문제해결 촉구 릴레이 공동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디스 문제해결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3월 지회와 면담에서 정리하고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직접 서명하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년 전 약속을 지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하

자더니 공장을 매각한 대만 E-INK와 하이디스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회는 “하이디스가 지난 7월 18일 대화하자고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알려왔고, 대만 E-INK 대표들이 한국에 와 김종훈 의원과 면담에서 지회와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대만 E-INK와 하이디스가 대화를 미루고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하이디스 공장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대만 E-INK 자본이 8월 7일 SK하이닉스와 약 300억원에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만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매각 관련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엄미야 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대만 E-INK 자본이 불법으로 정리해고하고 기술을 빼갔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대통령은 도둑놈 두둔하지 말고 자국의 노동자를 지키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목 지회장은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합의 문서를 들고나와 “길거리로 내몰린 지 3년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서명한 약속을 지키라”라고 외쳤다.

지회는 8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24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14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